2025. 5. 12

금융 Weekly Insight

보험 업종 실적 시즌 돌입 – 자본 관리 방안에 주목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 **리서치센터 금융/소비재팀**
2025년 5월 둘째 주

김재우 팀장, Senior Analyst jaewoo.kim@samsung.com
정민기 Analyst mingi.jeong@samsung.com
박준규 Analyst jun.kyu.park@samsung.com
박세웅 Research Associate sewoong.park@samsung.com

금융 Overview

- 은행 – 지난 주 은행은 -0.3% 하락. 영업일이 3일로 짧았던 만큼, 추세를 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가운데, 직전주까지 한 달여간 연이은 상승세를 보인 후 일부 숨 고르기에 나선 것으로 판단. 다만, 지난 1Q 실적 시즌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은행들의 올해 실적은 상대적으로 견조할 여지가 크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 또한 흔들림없이 이행될 여지가 크다는 관점에서 접근 필요.
- 증권 – 업종 지수 w-w+1.2% 상승. 4월 이후 연이은 상승세를 보인 증권업종 주가는 연휴 들어 일부분 숨 고르기 국면에 진입. 양호한 1분기 실적 시즌 종료되며 주가는 향후 자본시장 관련 정책 뉴스에 따른 변동성을 보일 전망.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전년 대비 해외주식 거래대금 증가세의 점진적 둔화가 우려 요인.
- 보험 – 업종 지수 w-w -1.4% 하락. 특별한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이번주 대부분 보험 업종 커버리지사들이 1분기 실적발표회를 개최 예정. 시장의 관심은 실적 자체보다도, 하락이 예상되는 자본비율의 향후 관리 방안 및 이와 연동된 자본배치 정책 등에 주목할 전망.

1.1 지난주 주요 뉴스 점검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5/8) 소호대출 반년 만에 증가** - 주요 은행의 소호대출 규모가 6개월만에 증가. 5대 은행의 소호대출 규모는 324.8조원으로 3월대비 0.36조원 증가. 이는 '24년 11월부터 이어지던 감소세가 전환된 것을 의미. - 이의 원인은 은행권이 4월 중 내놓은 소상공인 대책에 기인. 이들 은행은 26조원 규모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책을 내놓았음. - KB는 영업점 전결 금리우대 프로그램을 1.5조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하고, 신한은 비슷한 프로그램을 통해 6.4조원을 지원하며 신규 대출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 5천억원을 집행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	**급격한 소호대출 반등 가능성은 제한적 판단:** 은행권의 소호대출 증가는 경기 회복 등에 따른 이유라기 보다는 최근의 금리 하락 및 일정 수준의 유동성 공급 필요성 증대, 그리고 일부 내수 경기 저점 통과 기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즉, 은행들의 소호대출이 급격히 반등세를 보이기보다는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강화 기조 하에서 점진적으로 이뤄질 여지가 더 높은 것으로 판단.
	(5/9) 도소매업 연체율 급등 - 은행권 대출 문턱 상향 - 은행권 도소매업 대출 연체율이 최근 3년 새 2배 이상 상승, 이에 은행권은 관련 대출에 대해 보수적 태도. - 4대 은행의 기업대출 중 도소매업종 연체율은 단순평균 기준 1Q22 0.21%에서 1Q25 0.54%로 상승. -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도소매업 연체율 상승을 경기침체라는 외부 요인이 아니라, 유통 산업 내 구조적 위험으로 해석. 이에 심사기준이나 한도 관리를 강화하는 흐름이라고 밝혔음.	**도소매업 발 급격한 대손 비용 부담 우려는 과도:** 다만, 이러한 뉴스를 기반으로 은행들의 도소매업종 관련 충당금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는 현 시점에서 다소 과도한 것으로 판단. 이미 코로나19 등을 거치며 은행들은 이들 대출에 대해 담보 혹은 보증 설정 등을 통해 리스크 축소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

(다음 페이지에 계속)

1.1 지난주 주요 뉴스 점검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5/9) 은행 기술금융 대출 축소에 금융위 "인센티브 검토"** - 은행권의 '24년 기술신용대출 잔액이 전년대비 2조원 가까이 감소. - 특히, 창업기업, 소액여신 취급 비중이 감소하고, 신용대출 신규취급 비중이 감소함. 이에 금융위는 관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등을 검토할 계획으로 보도.	**향후 인센티브의 내용이 관건:** 은행들의 입장에서 기업 신용대출을 쉽게 늘리지 못하는 이유 고려 필요. 즉, 은행들은 1) 현재의 경기 상황 하에 건전성 악화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와 더불어 2) 신용대출 성격 상 자본비율 산정 시 적용되는 위험가중치가 높은 만큼, 자본비율 제고 필요성도 고려해야하는 상황. 즉, 금융위의 인센티브가 이러한 은행들의 Pain point를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
	(5/10) 3단계 스트레스 DSR 윤곽 이달 중 공개 - 7월부터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의 윤곽이 이달 중 공개될 예정. - '24년 9월 2단계에서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한 가운데, 7월 3단계부터는 1.5%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었음. - 하지만, 금융당국은 지방 경기 침체 등을 고려, 지방에는 스트레스 금리 차등 적용 방침. 다만, 기존의 0.75%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을 전망. - 3단계 시행 시, 수도권은 대출 한도 축소 불가피. 지방은 DSR 적용 속도를 늦추더라도 가계부채 증가 억제 기조는 이어가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 -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는 3.8% 이내이며, 은행권에 월별, 분기별 관리를 지도 중.	**대선을 기점으로 대출 성장 급증 우려는 과도:** 일각에서는 대선 이후 은행의 대출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음을 우려. 하지만, 국내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는 지속되고 있고, 특히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도 적용 예정인 점 고려 필요. 즉, 은행 대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가계대출의 관리 강화 기조는 지속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 초점. **기업대출 증가는 가능하지만 선별적 접근 전망:** 한편, 기업대출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 이는 단순히 정부 규제 측면보다는 1) 내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2) 한미간 관세 협상에 따라 불확실성이 점차 완화될 수 있기 때문. 즉, 이 과정에서 은행의 대출 성장은 선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보험	**(5/7) 年 5%대 수익률 반토막… 보험사 자금 운용 난항** - 보험사들이 20년전 대규모로 투자했던 국고채 20년물 만기가 '26년부터 도래. 당시 5%대였던 금리는 현재 2%대까지 절반 가량 하락했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자산 확보 필요성 대두 - 보험사는 가입자의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마련을 위해 1) 긴 만기와 2) 안정적인 수익률의 투자 자산을 선호. 실제로 2006~2011년 동안 발행된 48조원 규모의 국고채 중 상당수를 보험사가 인수. - 상당수 보험사에서 전체 운용 자산의 10% 안팎을 해당 기간 발행한 국고채로 보유 중.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인프라스트럭처 펀드, 글로벌 사모신용펀드 등 중수익에 만기가 긴 투자처에 관심.	**ALM 매칭을 위한 장기채 수요 지속될 전망:** 보험사 자산운용의 최우선 목적은 운용수익률 제고보다도 미래 보험부채에 대응하기 위한 ALM(Asset-Liability Matching)에 있음. 이에 따라, 국채금리 둔화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보험사들의 장기채권 매입 수요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 한편, 인프라 대출 등 대체투자의 경우, K-ICS 상 요구자본계수가 높다는 점에서 편입에 제약요건 또한 존재.
	(5/8) 롯데손해보험 콜옵션 행사 강행… 금감원은 불허 입장 고수 - 롯데손보의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는 5/7 금감원 승인 불허로 연기된 상황. 다만, 회사측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콜옵션 행사 의지를 피력하고 있으나, 금감원은 유감 표시. - 롯데손보는 지난 2월 후순위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까지 진행한 상태에서 발행 취소. 이에 따라 K-ICS 비율이 '24년말 155% 대비 하락하면서, 후순위채 조기상환 조건인 'K-ICS비율 150% 유지' 조건을 미충족. - 언론사에 따르면, 후순위채 발행 취소의 배경은 롯데손보의 무저해지 해지율 관련 예외모형 적용. - 업계에선 흥국생명 사태 재발에 대한 우려 존재. 다만, 금감원은 흥국생명 사태 당시 채권시장은 극도로 경색되었으나, 최근 국내 채권시장은 유동성이 풍부하고, 롯데손보 채권은 국내 발행이므로 문제없을 것이란 입장.	**금융당국 자본관리 강화 기조에 주목:** 금번 롯데손보 후순위채 사례의 경우, '22년 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행사 검토 사례와 달리, 사측은 상환 의지가 있는 상태에서 보험업법상 제약 사항에 부딪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이에 따라 보험사 자본성증권 시장 충격은 과거 대비 제한적일 전망. 한편, 금융당국은 1)기본자본 K-ICS 도입뿐만 아니라, 2)보험사 자본건전성 강화에 대한 의지 또한 강력한 것으로 간접적으로 파악 가능.

(다음 페이지에 계속)

증권	**(5/8) 핀테크 플랫폼에서 펀드 비교/추천 가능... 증권 및 은행 판매채널 지각변동 올까** - 앞으로 네이버, 토스 등 핀테크 플랫폼에서 여러 펀드를 비교 및 가입 가능. 예금과 보험에 이어 공모펀드에도 핀테크 플랫폼 비교/추천 서비스가 도입. - 해당 서비스는 침체된 공모펀드 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시도로, 시장 활성화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기존 펀드 판매채널인 은행과 증권사는 반발. - 현재 비교/추천 대상 펀드는 저위험 펀드 상품으로 제한.	**위험등급 제한 요소가 관건:** 플랫폼 펀드 비교, 판매 서비스 출시에 따른 즉각적인 업계 채널 변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이는 1) 판매 가능 상품이 '중저위험 상품'으로 제한되어, 흥행 가능성이 불투명한 가운데, 2) 혼합형ETF/액티브ETF 등 기존 공모펀드의 기능이 ETF 상품 투자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기 때문.
	(5/8) 자취 감추는 IPO 대어··· IPO 시장 침체 지속 - 올해 상장이 예정되었던 조(兆) 단위 대어들의 상장 철회가 이어저면서 IPO 시장 회복 기대감 불투명. 상장 철회는 수요예측 흥행 실패 때문으로, 이는 美 정부 관세 정책 및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기인. - 업계에서는 작년부터 IPO 시장 분위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매크로 불확실성 여파까지 더해지자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 악화가 해소되지 않음을 지적. 특히, 공모 시장은 증시 분위기 영향에 민감하기 때문에 상장 연기 움직임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 - 한편, 일각에서는 코스닥 상장 도전 기업들의 수요 예측 분위기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투심 위축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 이에 따라 중소형주 중심의 IPO deal 이어질 것이란 분석.	**IPO 시장 침체는 최근만의 뉴스는 아님:** IPO 시장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22년을 기점을 Peak-out 하고 있는 상황. 다만, 증권사 입장에서는 PF, 대체투자, 인수금융 등으로 IB 수익을 다변화하고 있는 실정으로 IPO 침체에 따른 실질적 어닝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오히려 간접적으로 대형 IPO 흥행 부진에 따른 증권사 청약 자금 유입 및 투자자예탁금 Lock-in 효과 축소가 펀더멘탈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5/8) 퇴직연금 중도 해지 시 이자 최소 80% 수취 가능 - 6월부터 은행 및 보험사 통해 가입한 퇴직연금의 중도해지 수수료가 대폭 인하될 예정. 중도해지의 부담이 적어지면서 퇴직연금 시장 내 머니무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현재 은행 및 보험사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가입한 경우, 연 3% 금리의 정기예금 가입 후 한 달 만에 해지할 시 0.1%의 이자만 수취 가능. 그러나 6월부터는 약정 이자의 80~90%를 보장. - 정부의 이 같은 수수료 개편은 '23년 도입한 디폴트 옵션 제도가 높은 해지 수수료 때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 때문.	**퇴직연금 자산 Gathering 움직임은 지속 강화될 전망:** 퇴직연금 시장은 금융업권을 막론하고 미래 비즈니스 관점에서 최대 과제로 선정되고 있음. 주요 자산 보유층의 은퇴 시점 및 연금 수령 시점이 본격화되며, 해당 자금 Flow의 운용 니즈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 다만, 현시점에서 연금 사업의 수익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경쟁 심화에 따른 최저 수준의 거래 수수료율과 자문 수수료 등 자산관리 기반 보수 수익 등의 부재에 기인.
카드	**(5/7) 스트레스 DSR 3단계 – 2금융권 일부 차주 한도 감소 전망** - 7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는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 2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됨. 이에 중저신용자,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 대출 여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 - 이들 차주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출 한도가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시 신규 대출 혹은 대출 연장, 추가 대출 등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 - 이에 카드사들은 대출 포트폴리오 조정 중. 일례로 카드론 등 장기대출 심사 기준도 점차 강화 중. - 일각에서는 7월 규제 시행 이전 대출 수요 쏠림 현상도 경계.	**카드사 리스크 관리 강화 지속 전망:** 카드사들은 리스크 관리 강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즉, 현재의 경기 상황 하에서 카드 결제 규모가 크게 늘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카드 대출 사업 또한 당분간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5/8) 카드사 조달금리 2%대 하락 vs 리볼빙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 - 금투협에 따르면, 여전채 (금융채 II 3년물 AA+ 등급) 발행금리는 '24년 3월 말 3.769%에서 '25년 4월 말 2.795%로 0.974%p 하락. 1년 사이 1%p 가까이 하락한 셈. - 반면, 리볼빙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다만, 리볼빙 잔액은 금융당국이 지난 '23년 말 리볼빙 광고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을 기점으로 점진적 감소세. '24년 3월 7.1조원에서 '25년 3월 6.8조원으로 0.35조원 감소	**성장 둔화 vs 수익성 점진적 개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카드사의 자산 성장성은 둔화될 여지가 크지만, 이와 반대로 수익성의 점진적 개선은 카드사 실적에 긍정적 기여 판단. 다만, 카드채 만기가 보통 3년인 점을 감안, 카드사들의 조달 비용률 개선은 기존의 고금리 채권의 만기 도래 및 이들 재원의 차환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나타날 여지가 큰 것으로 판단. **결국 관건은 건전성:** 결국 이러한 환경 하에서 카드사들의 실적에 있어 최대 관건 중 하나는 건전성 관리가 될 것으로 예상

(다음 페이지에 계속)

핀테크	**(5/9) 네이버페이 외부 결제 50% 돌파** - 네이버페이의 1Q 결제액은 19.6조원으로 17.4% y-y 증가. - 특히, 이 중 외부 결제액은 10.2조원으로 23.7% y-y 급증, 전체 비중의 52%를 차지. - 외부 결제액 확대는 네이버페이가 결제 수단으로써의 경쟁력을 갖췄음을 의미. 즉, 생활 금융 슈퍼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도."	**페이업체들의 슈퍼앱으로 진화 노력:** 기존의 페이업체들이 모기업 생태계의 결제라는 기능 제공에 국한되었으나, 이제는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을 통한 슈퍼앱으로의 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 네이버 또한 대대적인 앱 개편 등을 통해 이러한 시류에 동참 중인 것으로 판단. **여전히 남은 과제는 온-오프라인 상 Seamless한 경험의 제공 여부:** 네이버페이의 외부결제 증가는 고무적이나, 여전히 과제는 오프라인까지 아우르는 Seamless한 결제 경험의 제공 여부. 즉, 여전히 오프라인은 기존의 플라스틱 카드를 비롯, 삼성페이와 애플페이 등 간편결제 수단들의 편의성이 높은 만큼, 네이버페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는 결제 기능 제공 및 이에 대한 소비자 경험의 축적이 향후 또 다른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
	(5/10) 2,800만 가입자 토스쇼핑 - 대대적 서비스 개편 예정 - 토스가 만든 토스쇼핑이 3년 차를 맞아 대대적인 서비스 개편에 나서며 커머스 사업부 강화에 나설 계획. 토스쇼핑은 정교한 개인화 추천을 추진 중. - 토스쇼핑은 이미 셀러 3만명을 모집하였고, 쇼핑 MAU는 1월 기준 8백만명을 기록하며 11번가 781만명과 G마켓 543만명을 추월. 또한 최근 1개월 이용 전환율은 57.6%로 기존 쇼핑 플랫폼 30~40%를 상회. - 특히, 티메프 사태 여파로 셀러들의 이커머스 선택 기준이 빠른 정산이 된 가운데, 토스는 고객의 구매 확정 후 2영업일 이내에 정산을 시행하고, 상품 성과형 광고로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판매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의 메리트를 제공, 빠른 속도로 셀러들을 유치 중.	**원앱을 넘어 슈퍼앱으로의 전환 시도:** 토스는 다양한 금융 기능을 하나의 앱에서 구현하는 원 앱을 넘어 금융과 비금융을 아우르는 슈퍼앱으로의 전환을 시도 중인 것으로 평가. 특히, 비금융 기능 강화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1) 토스 쇼핑을 앱의 홈 화면 하단 가운데 배치하였고, 2) 만보기로 포인트 적립하는 기능과 쿠폰 저장 기능 등의 소비자 혜택 강화에 나서고 있으며, 3) 최근에는 광고, 커머스, 머신러닝 분야의 엔지니어를 1천명 규모로 채용에 나서고 있음. **핵심은 트래픽을 넘어 자체 생태계 구축:** 이러한 토스의 노력은 궁극적으로 토스 앱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의 선순환을 통한 수익 창출 역량의 강화로 판단.

Company	News	Implication
우리금융지주	**(5/8) 우리금융 생보사 인수 - 고용 승계 노조 반발 예고** - 동양생명 및 ABL생명 노조가 우리금융의 고용보장, 보상 문제를 놓고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도. 실제로 승인 이후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후속 협상은 시작되지 않고 있음. - 이슈 1. 매각 위로금: 동양생명과 ABL생명은 '21년 라이나생명 매각 당시 위로금인 기본급 1,200% 선례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 - 이슈 2. 희망퇴직금: 한편, 해당 보도는 희망퇴직금도 언급. 실제로, 동양생명과 ABL생명 현재 직원은 총 1,700명 수준으로 신한라이프 1,550명보다 많은 수준. 참고로, 오렌지라이프의 경우, 400명 이상에게 최대 3년치 기본급과 특별퇴직금을 주고 희망퇴직을 진행한 바 있음. 다만, 아직 고용승계 등의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이를 논의하는 것은 다소 이른 상황. - 우리금융은 인수 승인 이후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다는 입장. 다만,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을 예정이며, 구성원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고려할 것으로 언급.	**인수 이후 '25년 이익 개선 기대:** 인수 시점에 따라 두 생보사의 이익을 연결로 인식할 수 있고, 염가매수차익까지 발생할 경우, 이는 '25년 실적에 긍정적으로 기여 전망. **'24년 기준 이익 개선 효과 3,408억원:** 우리금융은 지난 1Q 실적 발표에서 생보사 인수 시 '24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인수 지분율을 감안, 총 3,408억원의 연간 이익 개선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언급. 가령, 3Q부터 연결로 인식할 경우, 단순 계산으로 이의 절반인 1,700억원 내외 수준의 이익 개선 효과를 기대 가능. **다만, 인수 직후 PMI 과정에서의 비용 발생도 고려 필요:** 다만, 인수 직후 일회성 비용의 발생은 위의 경상 이익 개선 효과 및 일회성 이익으로 기대되는 염가매수차익의 영향을 일부 상쇄할 수 있음도 고려 필요. 일례로, 1) 연말 선제적으로 두 생보사의 부실 자산 정리 등에 따른 비용 인식이 가능하고, 2) 언론 보도와 같은 위로금 발생도 고려 필요. 한편, 3) 중장기적으로는 두 보험사 합병으로 전략적 방향이 설정될 경우, 이와 관련된 통합 비용 등의 지출도 고려 필요.

자료: 언론 보도, 삼성증권

1. 2 금주의 주요 Event check

Sector	국내	해외
2025-05-12 (월)	KDI 경제동향	美-中, 첫 무역협상 관련 공동성명 발표 유로존 유럽연합(EU) 재무장관회의
2025-05-13 (화)	국무회의 개최 1분기 지역경제동향	미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 미국 MSCI 반기 리뷰 미국 4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독일 3월 경상수지 독일 5월 ZEW 경기기대지수 영국 3월 실업률 일본 일본은행(BOJ) 금융정책결정회의 요약본
2025-05-14 (수)	KDI 경제전망 4월 금융시장 동향 4월 고용동향	미국 주간 MBA 모기지 신청건수 미국 주간 원유재고 독일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확정치 일본 4월 생산자물가지수(PPI) OPEC 월간 보고서
2025-05-15 (목)	월간 재정동향 3월 통화 및 유동성	미국 4월 생산자물가지수 미국 4월 소매판매 미국 4월 산업생산 미국 연준 '토머스 라우바흐 컨퍼런스' 개최 미국 5월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지수 미국 5월 뉴욕주 제조업지수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미국 5월 NAHB 주택시장지수 미국 3월 기업재고 유로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치 유로존 3월 산업생산 영국 1분기 국내총생산(GDP) 예비치 영국 월간(3월)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 영국 3월 산업생산 일본 4월 공작기계수주
2025-05-16 (금)	5월 최근 경제동향 4월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4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 (잠정)	미국 옵션만기일 미국 4월 주택착공, 건축허가 미국 4월 수출입물가지수 미국 5월 미시건대 소비심리 평가지수 잠정치 미국 주간 원유 채굴장비 수 일본 1분기 GDP (예비치) 일본 3월 산업생산 (수정치)

Company event	국내	해외
2025-05-14 (수)	삼성증권, 한국금융지주,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금융지주 1Q25 실적발표	
2025-05-15 (목)	한화생명 1Q25 실적발표	
2025-05-16 (금)	삼성생명 1Q25 실적발표	

자료: 각 사,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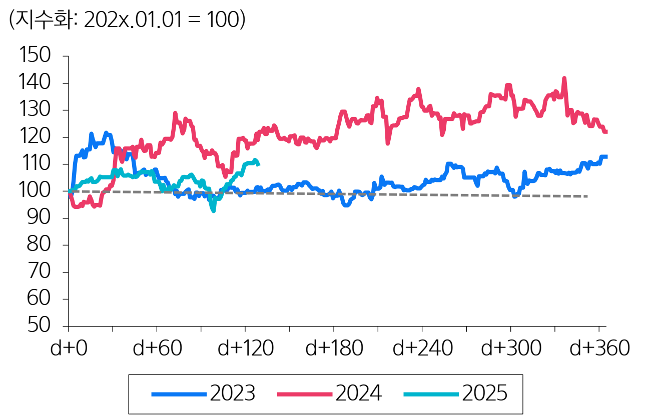
1.3 주가 Performance

업종	종목	시가총액 (조원)	주가 (원)	2025E 주주환원율 (%)	PBR (배)	ROE (%)	PER (배)	EPS Growth (%)	주가 Performance (%) 1W	1M	1Y	YTD
코스피		2,053.4	2,577.3						0.7%	12.4%	(5.0%)	7.4%
KRX은행		124.8	917.8						(0.3%)	18.8%	12.9%	10.0%
KRX증권		29.1	907.9						1.2%	29.3%	27.4%	23.2%
KRX보험		49.7	1,806.0						(1.4%)	12.4%	(3.9%)	(4.8%)
결제 지수*		0.905	n/a						0.6%	8.8%	(25.4%)	1.1%
은행	KB금융	36.2	92,000	45.4	0.6	9.8	6.1	11.0	(1.3%)	29.8%	20.1%	11.0%
	신한지주	25.5	50,700	43.9	0.5	9.6	5.0	14.5	(1.0%)	16.3%	9.0%	6.4%
	하나금융지주	18.3	63,800	42.2	0.4	9.9	4.4	10.7	(0.5%)	22.2%	7.2%	12.3%
	우리금융지주	13.1	17,690	35.4	0.4	9.2	4.3	-1.0	(0.2%)	15.1%	23.4%	15.1%
	기업은행	12.1	15,150	32.0	0.4	8.6	5.0	-1.7	(0.5%)	11.4%	9.5%	5.7%
	BNK금융지주	3.3	10,370	38.7	0.3	8.0	4.0	14.1	(0.4%)	11.5%	23.0%	0.3%
	iM금융지주	3.4	17,300	34.9	0.3	9.0	3.6	124.9	(0.2%)	7.9%	29.4%	6.3%
	JB금융지주	1.7	10,390	45.3	0.6	12.6	5.0	0.0	1.9%	21.9%	25.3%	27.0%
	카카오뱅크	10.8	22,700	45.0	1.5	7.2	22.3	10.3	2.7%	14.6%	(5.6%)	7.8%
증권	미래에셋증권	6.8	11,880	40.0	0.5	7.6	8.9	1.3	(0.8%)	39.8%	57.4%	47.9%
	NH투자증권	5.0	15,320	54.0	0.6	9.0	6.8	6.3	0.8%	25.6%	23.3%	9.8%
	한국금융지주	4.7	84,200	22.0	0.5	10.8	4.8	5.0	1.6%	28.7%	23.3%	18.1%
	키움증권	3.5	142,500	33.8	0.6	13.2	4.8	4.1	3.6%	29.7%	11.2%	22.6%
보험	메리츠금융지주	21.3	118,200	55.7	2.0	20.8	9.8	-0.3	(3.6%)	9.6%	47.2%	13.7%
	삼성화재	17.8	375,500	40.5	1.0	12.9	8.2	6.5	(0.4%)	14.7%	18.8%	4.7%
	삼성생명	16.9	84,600	42.6	0.6	7.5	7.9	10.0	(0.8%)	14.9%	(4.5%)	(10.8%)
	DB손해보험	6.4	90,200	25.4	0.7	18.0	4.0	-9.5	(2.9%)	14.3%	(5.5%)	(12.3%)
	한화생명	2.3	2,645	10.4	0.2	6.8	3.2	-0.1	(0.4%)	8.8%	(10.2%)	7.5%
	현대해상	1.9	21,550	0.0	0.3	16.2	2.2	-15.5	(1.8%)	8.0%	(29.6%)	(12.8%)
결제	카카오페이	4.0	29,400	n/a	n/a	2.7	75.1	흑전	(6.8%)	10.1%	(17.9%)	12.0%
	NHN KCP	0.3	7,670	n/a	n/a	15.2	7.4	4.8	(0.5%)	6.1%	(33.3%)	8.0%
	KG이니시스	0.2	8,780	n/a	n/a	8.3	4.0	77.5	0.8%	8.5%	(25.8%)	(0.7%)
	KG모빌리언스	0.2	4,305	n/a	n/a	9.1	4.6	13.9	1.1%	11.5%	(16.7%)	(9.3%)
	나이스정보통신	0.2	19,130	n/a	n/a	9.3	5.0	296.1	1.8%	11.6%	(13.4%)	6.6%

참고: 5/9 종가 기준
* 당사 커버리지 하 기업 시가총액 합산 기준 (카카오페이 제외 기준)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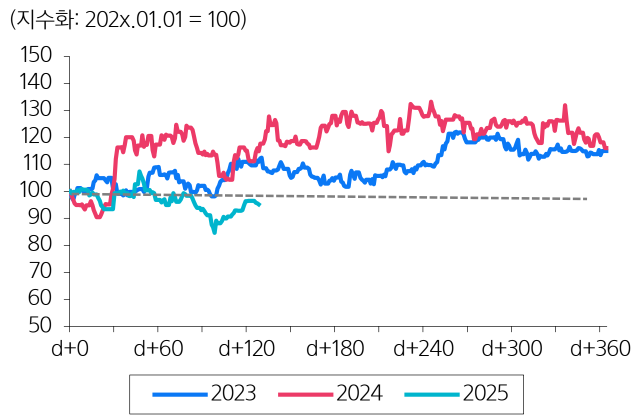
1.4 주가추이 – At a glance

은행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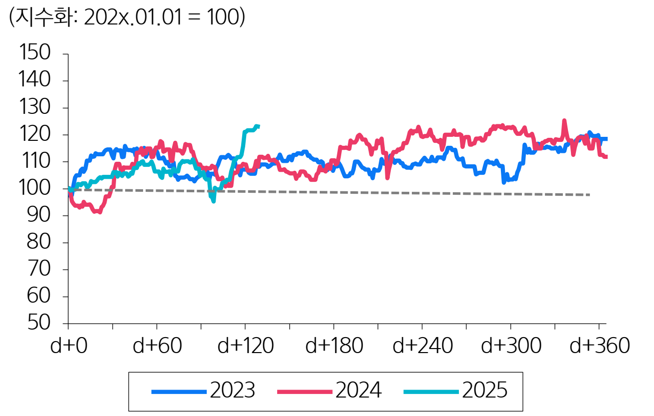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보험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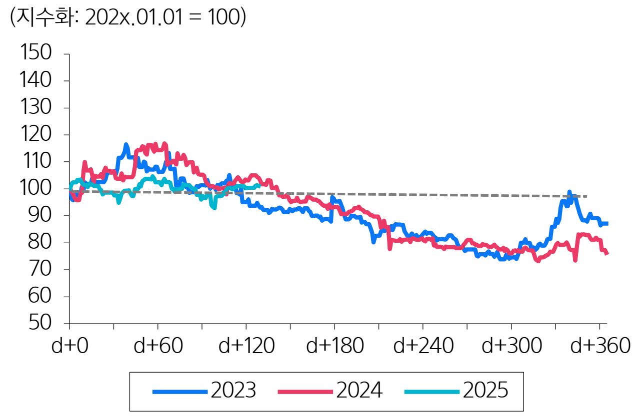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증권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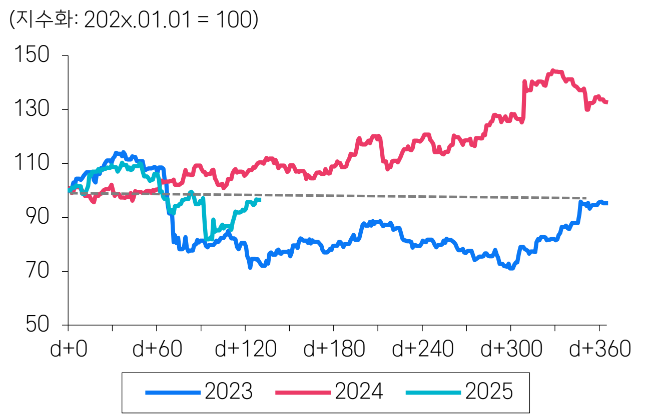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결제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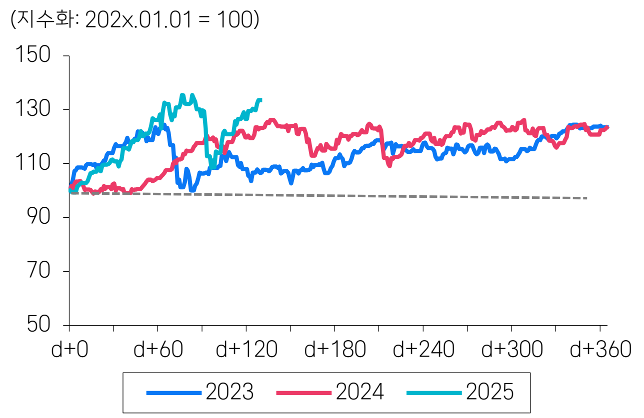
참고: 당사 커버리지 하 기업 시가총액 합산 기준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미국 은행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유럽 은행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1.5 해외 Peer 점검

Sector	지역	종목	시가총액 (USDb)	25E Valuation						주가 Performance			
				주주환원율 (%)	PBR (배)	ROE (%)	PER (배)	EPS growth (%)		1W (%)	1M (%)	1Y (%)	YTD (%)
은행	미국	JP Morgan	703.3	82.0	2.0	15.4	13.8	(7.0)		1.5	7.1	30.9	5.6
		Bank of America	314.8	28.9*	1.1	10.0	11.5	11.8		2.3	16.2	10.2	(4.9)
		Citigroup	133.4	94.4	0.7	7.1	9.8	22.9		2.9	15.9	15.6	1.5
		Wells Fargo	235.8	99.7	1.4	11.3	12.5	8.2		(1.4)	15.9	20.9	3.1
		PNC Financial	65.8	68.4	1.2	11.5	11.1	8.5		1.8	9.5	6.5	(13.7)
	유럽	Banco Santander	113.2	54.1	1.0	12.2	7.6	8.6		4.8	19.1	40.1	49.0
		Unicredit	94.0	98.8	1.3	15.0	8.6	0.3		2.6	16.1	54.6	39.6
		BBVA	82.9	61.2	1.2	16.2	7.7	(4.8)		2.4	13.6	22.0	35.6
		ING Group	64.3	125.2	1.1	11.3	9.8	(6.5)		1.8	15.2	23.9	20.3
		Lloyds	58.3	96.1	1.1	10.3	11.6	0.0		2.0	9.4	42.6	33.3
		Barclays	58.2	64.7	0.7	9.3	8.3	0.0		3.0	19.0	50.5	14.5
	일본	Mitsubishi UFJ FG	149.9	58.1	1.0	9.7	10.9	33.3		4.2	10.1	16.7	(1.9)
		Sumitomo Mitsui FG	91.3	57.3	0.9	8.4	10.6	33.2		4.4	11.7	16.8	(9.0)
		Mizuho FG	63.2	48.4*	0.9	9.0	10.1	35.0		6.7	13.1	22.3	(5.3)
	중국	China Construction Bank	217.8	30.4*	0.5	10.0	5.1	(0.1)		3.6	2.8	33.3	2.6
		China CITIC Bank	54.1	27.6*	0.5	9.4	5.1	0.5		2.1	5.7	41.6	16.6
보험	미국	Berkshire Hathaway	1,108.5	N/A	1.6	5.5	24.3	(48.7)		0.4	(1.7)	26.1	13.2
		AIG	47.5	214.3	1.1	8.8	13.6	흑전		(0.1)	0.5	10.4	13.2
		Travelers Insurance	61.1	56.1	2.0	14.8	14.4	(12.9)		0.6	10.0	26.1	12.0
	유럽	Allianz	157.1	77.2	2.2	17.9	13.0	10.8		(4.0)	10.5	38.0	22.5
		AXA	103.6	37.8*	1.8	16.5	10.3	16.0		1.8	12.2	23.3	22.1
		Generalli	60.6	58.5*	1.7	13.4	12.9	11.4		1.9	20.3	52.9	27.6
	일본	Tokio Marine	77.2	31*	2.2	20.4	11.1	49.5		3.0	18.4	21.1	1.6
		Daiichi Life Insurance	27.1	30.3*	1.0	10.4	9.9	30.5		5.1	17.3	22.7	0.7
	중국	Ping An Insurance	121.5	38.5*	0.8	12.9	6.6	(1.9)		(0.3)	9.0	31.9	1.0
		China Life Insurance	122.6	24.8*	0.7	12.3	5.2	(24.9)		2.2	12.4	47.2	1.5
		PICC P&C Insurance	42.1	38.4*	1.2	13.1	9.2	10.5		(0.4)	8.6	45.7	20.1
증권	미국	Goldman Sachs	180.6	100.8	1.6	13.1	12.7	10.5		3.2	14.7	35.0	(1.0)
		Morgan Stanley	195.2	76.7	1.9	14.2	14.1	8.3		2.8	12.6	31.5	(3.2)
		Charles Schwab	157.7	86.6	3.3	17.1	20.7	36.2		2.0	9.8	12.8	14.1
		Robinhood	48.2	40.1	5.6	13.4	41.5	(15.6)		12.2	25.1	219.2	46.7
카드	미국	American Express	199.3	68.8	6.2	33.6	18.7	8.5		3.3	13.3	20.0	(4.1)
		Discover	47.8	54.1	2.4	19.3	13.4	(19.7)		1.0	21.0	51.2	9.7
결제	미국	VISA	701.5	22.3*	17.8	55.4	32.5	11.6		1.4	5.7	28.1	11.5
		MasterCard	516.4	19.3*	67.4	201.2	36.0	13.8		1.7	11.6	23.1	8.0
		PayPal	68.3	0*	3.2	24.2	14.2	24.1		3.2	12.3	9.6	(17.7)
	유럽	Adyen	56.0	0*	9.3	23.2	44.1	21.2		6.7	19.0	36.9	10.2
핀테크	미국	Block	31.0	0*	1.4	7.5	26.7	(58.6)		6.5	(6.6)	(30.8)	(40.7)
		Upstart	4.5	0*	5.6	16.1	353.9	N/A		(8.2)	21.0	106.6	(23.4)
		Affirm	15.0	0*	5.0	0.9	828.0	N/A		(9.0)	14.6	46.6	(23.8)
	중국	LuFax	2.4	N/A	0.1	(2.7)	4.5	흑전		0.0	0.0	(37.4)	10.9

참고: Bloomberg 컨센서스 기준, 5월 9일 종가 기준
* 현금배당성향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